

화순군수 “포괄사업비 없애겠다”

전완준 군수, 광주·전남 단체장으로선 처음 “선심성 예산편성 폐지... 투명한 군정 펴겠다”

전완준 화순군수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편성·운영되어 온 ‘군수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고 전격 선언, 관심을 끌고 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대부분 ‘선심성 지역사업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이 타 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 군수는 지난달 31일 화순군의 회 정례회 개최식 연설에서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 행정은 종이 한 장, 물 한 모금의 낭비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군수 포괄사업비를 모두 없애고, 군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

전 군수는 이어 의원들에게도 “각 지역의 현안을 사전에 파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수(시장) 포괄사업비를 없애기로 한 것은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화순이 처음으로, 화순군 관계자도 “군수 포괄사업비는 도로 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이나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쓰여왔으나 이제부터는 정식 예산에 편입시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수(시장) 포괄사업비는

군수나 시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각종 선심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상당수 시·군에서는 ‘대가성 사업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는 선언은 투명한 행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군수나 시장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질 경우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포괄사업비=정식 명칭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상황 등에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칭한다. 대개 소규모 도로나 하천 개보수, 농로 포장 등 정식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긴급히 요구하거나 숙원 사업에 사용된다.

화순군의 경우 군수포괄사업비는 올해 11억 원이며, 화순군의원 10명의 포괄사업비는 10억 원이다. 군의원 1명이 1억 원씩의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셈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22개 시·군이 각각 10억 원 안팎의 시장(군수) 포괄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있다.



세계한상(韓商)대회 만난 제5차 세계한상(韓商)대회 이틀째인 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장급 페스티벌’에서 해외동포기업인 등 2천여명이 궁중무용을 보여 만찬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7일째 하락 반년만에 930원대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반년만에 처음으로 930원대로 떨어졌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이 원화와 엔화의 동반 강세를 이끌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2.90원 하락한 939.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7거래일간 20.20원 급락하며 지난 5월17일 936.90원 이후 반년만에 처음으로 930원대로 떨어졌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에 ‘무역전용단지’ 만든다

수출 기업 집적화·무역절차 일괄 처리 市, 내륙도시선 처음... 물류비용 최소화

광주시에 급증하는 수출 증가에 맞춰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무역 관련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무역전용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항만권에 위치한 수출전용단지나 무역전용단지는 있지만 내륙도시에서 무역전용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지역 연간 수출액은 지난 2003년 40억 달러에서 올해의 배에 달하는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수출입 규모가 지난 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수출업체들은 대부분의 수출 품목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의 낙후된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무역전용단지 구축과 부지 물색을 위한 연구를 전문가에 의뢰하는 한편 광주지역 수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로 사정하고 무역전용단지의 필요성 및 무역전용단지 구축시 입주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들어갔다.

시가 이번에 광주지역 130개 수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기업체들의 연도별 수출입 물량과 물류비용, 각 사별 물류 시스템 등을 파악해 무역전용단지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달 말에 설문조사가 나오는 대로 수출입 물동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수출입 업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출입계에 따르면 첨단·평동·하남단지 내 수출입 업체들은 수출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포장과 배송, 선적 등으로 인해 물류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만큼 광주공항이나 광양항, 목포항 등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수출입 단지가 절실한 입장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국 시장·군수·구청장協 “민주평통 예산 지원 거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내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지방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국가사무를 맡는 민주평통이 매년 약 125억원의

지방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이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통일국가 시대를 대비하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평통은 국비로 지원·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보조금, 사무실 사용료 등으로 연간 125억의 예산을 전국 시·군·구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남해안 개발 발기인추 구성 J프로젝트 사업 활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을 이끌고 갈 메인 특수목적법인(SPC)인 가칭 ‘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의 발기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이 만들어지는 등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서울사무소에서 이근경 정무부지사 주재로 지난 달 25일과 27일 각각 투자설명회를 교환한 전남개발콘소시엄, 대주그룹, 프라이그림, 농협중앙회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남해안개발(주) 발기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발기인 위원회는 앞으로 J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주주간 계약 및 정관작성, 경영진 구성, 법인 설립 절차 등 메인 SP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 발기인 위원회 위원장은 이근경 전남도 정무부지사, 부위원장은 강성한 프라이그림건설 사장이 맡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오는 9일 갖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전남 독거노인 8만4천명 최다

전남지역 독거노인은 총 8만4천77명으로 인구 대비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독거노인은 지난 해 12월 말 현재 8만4천77명으로 경기(9만6천2명), 서울(9만4천855명), 경북(8만8천68명)에 이어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인구수를 감안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전남이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

2008년 교원평가제 시행

교육부 입법예고... 전교조 대응 주목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원평가제를 200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고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예정 대로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착수함에 따라 22일로 예고된 ‘연가투쟁’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입법에 고안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교원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실시된다. 개정법의 시행은 2008년 3월 1일부터이며, 교원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법제안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정책추진방향’에 따르면 67개에서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2007년부터 전국 500곳으로 확대 시행되고,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

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 기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진 해수부장관 래깅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전남대를 방문, 행정대학원 최고 정책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10분부터 8시30분까지 법대 21호 강의실에서 ‘21세기 해양 경영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한 후 수강생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인애동산 노인요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광주시민 1만명 서명운동

- 남구 인애동산 노인요양원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구주민, 광주시민여러분!

2008년 노인수발보합제도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중증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우리부모님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남구 인애동산 노인요양원 건립사업이 주민들의 지역이거주의에 가로막혀 2개월이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인애동산 노인요양원’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노인요양원을 혐오시설이라면서 자신들의 정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노인요양원은 혐오시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설은 바로 우리 가족들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발하고 간호하고 요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선진국 필수특도심지역에 자리잡고 지역사회와 가족 및 인근주민들이 함께 봉사하며 생활하는 노인복지차원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서울,부천외에 인천의 은혜노인전문요양원도 이미 도심 한가운데에 터를 잡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남구는 ‘효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구정을 시행해오고 있는 노인복지 “선진 자치구”입니다. 노인수발보합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건립될 예정인 노인요양원도 바로 ‘효사랑’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현재 남구에는 노인수발보합을 신청한 420여명의 노인성 질환자가 계시며 이분들은 인애동산 노인요양원이 하루빨리 건립되기 전에 타계 기다리며 그분들의 가족들도 투근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을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광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노인요양원 입소 희망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남들이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인애동산 노인요양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 가운데는 요양원에 경제의장과 영안실이 설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도 없는 헛소문이며 노인요양원은 재활전문 요양시설로 수의를 위한 기타 부대시설은 절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 요양원에는 치료시설 외에도 가족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다목적 도서관을 비롯 노인들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 공간이 들어서 남구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요양원 건립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바람에 벌써 두 달째 구청과 요양원 건립지에서 불협정화와 시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구청과 남구의회, 경찰은 이를 지켜볼 뿐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어 다수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물론 요양원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는 대상자들의 열원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에 노인요양원을 건립하려 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수만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은 구경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며 노인복지확대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성 질환을 수반하고 있으며 반드시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우리를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생활권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애동산 노인요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더 이상 반대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이지 혐오시설이 아니며 영안실이냐 경제의장이 절대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노인요양원 건립사업을 가로막는 폭력적행위와 불법시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홍기숙,공수열,김종원,임재식,강홍석,고은석,이영민,강원구,고남원,박종일,박소원,김지훈,김미자,박현숙,김경식,이건동,김영남,이문선,이시현,김재순,이동진,이무정,한승민,이병희,김길진,문용이,김명주,김영수,임은미,김영래,김의재,박준명,박승준,김의재,김희배,김지원,정대희,정선혜,조수영,박승환,김영근,김길수,최대성,김택수,신규자,김병복,김용준,조경환,최영선,노근지,정영식,조제호,송수진,최영남,박효근,김순래,김광국,최현숙,장선숙,홍현숙,박정희,오영호,황선화,김규익,서정선,기현도,손지현,윤서룡,김미숙,김복희,신혜원,류국현,류정현,정종현,이계철,이하성,이원경,이진환,이춘옥,오윤순,이계순,이복자,이재현,김명환,김은경,조정민,이병일,조수복,정명주,정원규,정대영,전사래,정다운,조문연,이현수,이대우,이근수,노준지,이대선,이대홍,이건동,신규,범용,한건희,박희원,김영희,김미희,김경조,신숙,기원경,김경철,이병희,김상일,김윤호,장기자,김광호,김래훈,문재신,박강우,최현중,박상옥,안기택,강영구,이관우,조기부,황인용,서상근,왕명혜,김유철,문진호,박영주,채성남,정경아,오유정,오명희,이영미,위동훈,이영란,이미희,배정하,오복희,이은수,김승자,김신희,왕윤영,김연자,재홍,김금래,정숙경,정하연,이정은,나승재,홍미영,이애란,나근우,정연화,조진희,김준희,임재숙,정복식,정희정,정은숙,안동수,양훈,양훈영,윤종서,이기혁,한원규,오석민,서정민,정영선,정성룡,서진보,김효중,임선진,송용기,김명연,최은순,박현명,장영호,장기진,신재준,이병량,박지훈,김등오,이복래,정명래,한경애,김미희,김정남,김민숙,이한희,주영미,곽민희,김성호,하성준,김희미,김현옥,구연옥,왕정자,삼정아,정홍숙,조영미,이성희,성관속,채귀례,김진숙,최문규,최정윤,전미현,노대현,서수연,오정란,유경자,신정미,최승희,이우직,이경숙,정복식,김영림,배연옥,김지훈,황현순,오순현,공성래,김세희,박종률,김미경,박정민,최광순,박미숙,이연희,이미숙,김영희,노정희,김영숙,김희숙,박향실,송성남,정시연,김자연,최기호,이진선,최우,김영희,최종문,오정훈,최진원,오영숙,노영숙,김성숙,김희미,최성희,박정순,임은희,최광순,이은실,왕진,조영희,박미경,이정주,정복순,홍숙자,정연희,황국희,조미아,김길배,임창현,김단현,신은숙,윤미정,최순이,이화신,(무순)